

AUTHOR 정성구 (Sung Kuh Chung)

TITLE 한국교회와 칼빈연구
(A Study on Calvinism in Korean Church)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7 no.1 (Spring, 1990):12-31

한국 敎會와 칼빈 研究

鄭 聖 久

〈편집인·실천신학〉

들어가는 말

흔히 한국 장로교회는 보수적교회요 칼빈주의적 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칼빈 또는 칼빈주의 사상을 즐겨 말하는 것과 칼빈연구는 별개의 것이었다.

1884년 이땅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다. 이때로부터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는 선교였고,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는 주로 미국이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적 영향을 받고 칼빈주의적 전통 위에 섰다. 그후로 한국교회는 한 세기를 지났고, 세계선교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으며, 수백여개의 신학교가 세워져서 다투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골격인 칼빈의 신학과 칼빈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의 실적과 내용을 뒤돌아 보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전에도 몇분에 의해서 시도된 바가 있으나¹⁾ 여기서는 다소 보완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과정을 살피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Jong Sung Rhee, "Calvin Studies in Korea," *Circular* (Clearing House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Institutions for Christian Scholarship), No. 13 (April, 1979), p. 61f.

이상규 편,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1984—1984) (개혁주의신학협회, 1985) 또한 이상규, "칼빈주의와 한국교회" 풀빛북회 5월호(1983), p. 41f.

그런데 칼빈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신학하는 입장과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강조점도 다소 다르다. 또 순수하게 칼빈 자신을 연구하는(Calviniana) 것이 최상책이라고는 하나 역시 역사적으로 칼빈해석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소의 의견이 있음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엄격히 말해서 칼빈신학과 칼빈주의는 다를 수 있으나, 칼빈의 신학을 전수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 일어난 것까지를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의 신학적 입장을 정당화 또는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칼빈을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칼빈주의를 부르짖은 예도 없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전제하면서 한국에 있어서의 칼빈연구의 실태와 한국에 있어서의 칼빈 또는 칼빈주의 연구가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I. 한국교회에 있어서 칼빈의 영향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뒤인 1536년에 종교개혁을 했었다. 그러나 칼빈의 탁월한 조직력과 교리의 명쾌함, 그리고 신학자로서 다양한 저술들, 그리고 일생 동안 제네바의 목회자와 교육자, 교정가로서 삶 등은 제네바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스위스, 불란서,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독일 등지에 퍼져나갔고 한 세기가 지나면서 이들 나라에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 이루어지고 칼빈주의 황금기를 맞게 된다. 칼빈의 영향이 불란서에 들어가서는 휴그노(Huguenotes)를 만들었고, 영국에 들어가서는 청교도(Pilgrim-Puritans)들을 만들었고,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는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를 만들었다. 그리고 칼빈의 개혁사상이 화란에 들어가서는 화란개혁교회(Hervormde Kerk)를 만들었으며, 독일과 스위스에도 각각 개혁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리고 1628년에 화란 개혁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1700년대 전후해서 휴그노파들과 독일 개혁교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각각 미국 대륙으로 건너와서 그들 나름의 교

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의 성도들은 대개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 건너온 칼빈주의자들은 18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으로 쇠퇴하였다. 이때 퓨리탄 사상은 실증되었고 독일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등은 완전히 휴머니즘의 사상에 함락되었으며, 화란에서 이민 온 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만이 옛날 종교개혁의 신앙을 근근이 이어 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을 전후해서 구라파에서부터 화란과 스코틀랜드와 헝가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대거 이민을 오게된다. 이들 모교회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기왕에 있었던 교회에 큰 자극을 주어 옛 칼빈의 신학을 부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화란의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nisterer, 1801—1876)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에 의한 칼빈주의 부흥운동은 미국의 화란 개혁교회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계통인 프린스턴 신학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²⁾ 그 사건을 전후해서 한국교회는 선교를 받는 셈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계통이 세운 북장로교회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셈이 된다.³⁾

그러므로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회는 교회정치체제로는 스코틀랜드에서 나왔고 신학사상으로는 칼빈과 그의 동지개혁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칼빈주의적 신학이 유럽대륙에서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200년동안 시련을 겪다가 칼빈주의 신학의 부흥기에 한국에 들어온 것이다. 그후 또다시 한국에서 한 세기가 흘렀다.

그러므로 초기 한국에서 복음 전한 선교사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칼빈주의적이었다. 당시 미국교회의 분위기가 그러했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비롯해서 맥코믹신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⁴⁾ 특히 평양신학교

2) 이때 카이퍼 박사는 1898년에 프린스턴대학의 초청을 받고 Stone Lecture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칼빈주의」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3) 그외에도 남장로교,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가 지역을 탈리하여 이땅에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 선교부도 평양신학교를 함께 도왔다.

4) 19세기 말의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위기는 알렉산더(A. Alexander, 1772—1851), 찰스 핫지(C. Hodge, 1797—1878)부자 그리고 윌월드(B.B. Warfield, 1851—1921), 메첸(J.G. Machen, 1881—1937) 등의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를 후기 프린스턴 자유주의적 분위기와 대조해서 보통 Old Princeton Theology로 부른다. 다소 사변적이던 서 변증적 합리주의 요소를 띠고 있다. 한국교회 초기 20년간 활약했던

를 세운 마포삼열(Samuel A. Moffett)박사와 콕안런(Allen Clark) 등은 프린스턴 출신의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다. 뿐만 아니라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중에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이놀서(W.D. Reynold) 박사는 1924년에서 1937년까지 13년간 평양신학교에 조직신학교로 봉직하였다. 그는 미국의 대 칼빈주의 학자인 찰스 핫지(Charles Hodge)의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3Vols)을 기초로해서 교안을 만들었고, 1934년에 「칼빈神學과 그 感化」란 글을 썼다.⁵⁾ 또 평양신학교 교수로서 호남지방에서 일하던 구레인(J.C. Crane) 박사는 한국어로 조직신학을 처음 집필했는데 이 내용은 전통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그대로 개요하고 있다.⁶⁾ 또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23년간을 교장으로 지냈던 마포삼열(Samuel Moffett) 박사는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였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신학은 전통적 칼빈주의적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

그리고 선교사들의 일방통행적인 시대는 지나고 한국인 교수들에 의해서 신학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중반부터이다. 남궁혁 박사가 평신의 교수로 채용되고 이어서 1931년에 박형룡 박사가 전임으로 되면서 한국인 학자들이 神學指南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인 감화는 메이첸 박사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 입장은 그의 교의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⁸⁾ 1942년에 박형룡 박사는 비로소 교리학을 가르쳤다. 그가 채용한 교재가 당시 칼빈신학교 교수인 루이스 벨코프(L. Berkhof, 1873—1957)의 「조직신학」이었다. 박형룡은 이책을 중심으로해서 30년간을 수정보완하여 교의학 전

선교사들 중에 40명이 프린스턴 출신과 맥코믹신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 모두가 윌월드와 A.A. 핫지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5) 神學指南 제16권 4집(1934. 7) 통권 76호 칼빈 특집호.

6) J.C. Crane저, 김규당 역, 組織神學, (恩龍文化協會, 1954), 上, 下.

7) Samuel A. Moffett 박사는 1864년 1월 26일 미국 인디애나주 메디슨시에서 출생하였고 1884년에 하노바대학에 이어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를 졸업하고 1888년에는 모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얻는다. 그리고 1901년에 37세의 나이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얻었다. 마포삼열 목사가 한국에 도착한 것은 1890년 1월 25일 그가 26세 되던해였다.

8) cf. 鄭聖久, 總神과 朴亨龍(總神大學出版部, 1989), pp. 20f.

집을 만들어낸 것이다.⁹⁾ 사실 벨코프는 20세기 중엽까지 미국 보수교회의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은 신학적인 영향을 끼친 개혁주의 신학자의 한 사람이다. 박형룡은 물론 칼빈 연구학자는 아니지만 칼빈주의적 전통적인 신학을 받아서 한국에 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 자신도 말하기를,

“필자의 본의는 칼빈주의 개혁과 경통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전 달하는데 있고 감히 무엇을 창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못박았다.¹⁰⁾ 어쨌거나 한국교회의 설립과정과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의 대표적 신학자로 일컬어진 박형룡 박사의 신학적 입장 등은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노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분위기에 걸맞지 않게 칼빈연구나 칼빈주의 연구는 대단히 부족했었다. 또 칼빈주의적 사상이 삶의 전영역에서 나타나지도 못했다. 더구나 교회가 분열할 때마다 모두가 정통을 부르짖고 모두가 칼빈의 이름을 들먹이고 모두가 칼빈주의자로 자처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모두 칼빈을 말하면서도 칼빈연구가 학문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물론 칼빈연구란 의미는 칼빈의 전거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칼빈신학이란 다만 칼빈이 주장했거나 칼빈의 창의적인 신학이나 철학에 근거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빈의 신학은 바울에서 시작하여 어거스틴(St. Augustine)을 거쳐서 정리된 어거스틴신학사상을 칼빈이 다시 체계화 활성화한 것이다.¹¹⁾ 또 칼빈주의란 종교개혁자 칼빈

9) 박형룡 신학의 틀을 제공한 루이스 벨코프는 화란 출신의 미국 개혁파 교회의 학자로서 그의 책에는 칼빈주의 대가들인 Abraham Kuyper를 비롯해서 Herman Bavinck의 사상이 그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Warfield와 Hodge, Shedd, Strong의 입장에 보완되고 있다. 벨코프는 그가 교수로 일한 1906년에서 1957년에 서거하기까지 50년간을 1,000여편의 논문과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도 최근의 걸작이 「조직신학」이다.

10) 朴亨龍, 敬義神學 卷1 1권 서문.

11) H. Henry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Grand Rapids, 1956), p. 1.

자신의 사상체계가 아니고, 칼빈이 깨달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이 이런 사상체계를 종합해서 성경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이해했기에 이를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한국의 선교초기에는 복음 그 자체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점 복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고, 교회를 보는 시각도 달랐기에 종교개혁자 칼빈의 입장은 어떤지를 따지게 됐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관심을 갖게 했다. 이러한 관심이 1934년 神學指南에 비로소 칼빈연구특집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칼빈연구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복음이 이땅에 들어온지 '정확하게 50년만에 칼빈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칼빈에 대한 연구나 칼빈주의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고 신학 각 분야에서 조금씩 칼빈의 입장을 밝히는 정도였다. 그 이유는 자료의 제한성이 첫째일 것이다. 둘째는 일제시대와 6·25 이후 혼란 중에 학문적인 성숙을 위한 분위기가 없었는데다 신학적인 혼란도 칼빈연구가 정제된 이유일 것이다. 사실 칼빈은 워낙 다양하게 책을 저술하였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하는 사람치고 결국은 칼빈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 칼빈의 작품들은 우선 기독교강요, 주석, 설교집, 편지들, 신학논문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접하고서 칼빈의 사상을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때 한국교회의 칼빈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개혁교회의 정립을 위한 새로운 기초를 쌓는다는 생각으로 칼빈연구에 임해야 하리라고 본다.

II. 한국교회의 칼빈 연구 실태

① 초기에서 해방 전까지

우선 해방 전까지의 칼빈연구 실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땅에 복음이 들어온지 50년간은 아직도 한국학자

또한 Ben A. Warburton, *Calvinism, its History and Basic Principles, its Fruits and its Future,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to life* (Grand Rapids; 1955), p. 14.

가 신학을 논할만한 준비도 안되었으려니와 선교초기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으니만큼 칼빈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칼빈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34년 부터이다. 神學指南 제16권 4집(1934. 7)에 칼빈특집을 다루었는데, 남궁 혁 “칼빈神學과 現代生活”, 송창근 “요한 칼빈의 一生”, 박형룡 “칼빈의 豫定論, 裁정근 “칼빈의 敎會論과 敎會政策”, 이눌서 “칼빈神學과 그 感化”, 라부열 “聖書註釋家로 본 칼빈”, 박안련 “강단의 칼빈”, “땀박”(칼빈의 설교)—김재준 역 등 실로 신학 전반에 걸친 언급을 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10년 앞선 1924년에 김인영씨가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을 쓴 일이 있다.¹²⁾ 이는 감리교에서 10년 앞서 발표한 것인데, 이 문헌은 칼빈을 주제로 한 글 가운데는 최초의 것이 된다. 그리고 1937년 威日敦(Hamilton) 목사가 神學指南에 “칼빈주의”란 제목으로 세차례 걸쳐서 글을 쓰고 있다.¹³⁾ 이는 우리나라에 칼빈주의란 말을 쓰게된 최초의 글이 된다.

같은해인 1937년에 박형룡 박사가 미국의 조직신학자인 보트너(L. Boettner) 박사의 개혁주의 예정론(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칼빈주의 예정론”(367p)이라하여 펴냈다. 이 책은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예정론을 다룬 최초의 번역서가 된다. 그런데 아직도 칼빈주의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말해지지 않은채 칼빈주의 예정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칼빈주의는 바로 예정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외에도 1938년에 金泰默의 “칼빈神學에 있어서 豫定思想의 意義”가 발표되고,¹⁴⁾ 1939년에는 남궁 혁의 “칼빈의 사상”이 발표되었다.¹⁵⁾ 그리고 해방 전의 마지막 작품으로 박형룡의 “칼빈주의와 신칼빈주의”가 나왔다.¹⁶⁾ 사실 해방 전까지의 칼빈 또는 칼빈주의에 대한 글은 15편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모두가 엷세이류에 불과 하였다. 1940년 이후에 神學指南이 폐간

12) 김인영, “宗教改革家 요한 칼빈”, 神學世界(1924, 9), pp. 40—44.

13) 威日敦, “칼빈주의” 神學指南 19권 4호(1937. 7), 5호, 6호.

14) 神學指南, 20권 5호(1938. 9), pp. 33—45.

15) 神學指南, 21권 1호(1939. 1), pp. 2—10.

16) 神學指南, 22권 5호(1940. 9), pp. 10—12.

되고 평양신학교가 폐교되는 비운을 맞으며, 미국선교사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박형룡 박사를 비롯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만주 등지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그로부터 10여년 동안 일본의 박해 그리고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신학적 작업은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해방 후 1950년대 말까지

한국이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곧 한국교회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945년 해방이 된후에도 10여년간은 정부 수립과 6·25 동란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작업은 활발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1950년도 초에서부터 부산의 고려신학교의 잡지인 「把守軍」에서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여러 글들이 나왔다. 그리고 1954년부터는 神學指南, 十字軍, 神學論壇 등지에서 칼빈에 대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우선 해방 후 칼빈에 대한 첫번째의 글은 정해동씨의 “칼빈약력”이란 것인데 파숫군에 두차례에 걸쳐서 나왔다. 그리고 1951년에는 파숫군에 L. Berkhof 교수의 “現代의 宗教的 혼란 중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확고성”이란 글이 번역되었다.¹⁷⁾ 그리고 특이한 것은 1952년부터 1953년까지 朴允善 박사는 12회에 걸쳐서 把守軍에다 “칼빈주의”란 글을 연재하였다. 박윤선 박사의 이 글들은 실제로 한국인으로는 칼빈주의를 처음으로 소개한 내용이다. 물론 앞서 말한대로 1937년에 함일돈(Hamilton) 목사가 칼빈주의를 소개했으나 그것은 선교사의 입장에 서였고 朴亨龍 박사의 칼빈주의 소개는 보트너(L. Boettner) 박사의 책을 번역한 것이었다. 박윤선 박사는 이미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예컨대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와 바빙크(H. Bavinck)의 신학에 깊이 섭취하고 있었던 터이라 칼빈주의 사상을 잘 소개할 수 있었다. 그의 글에는 주로 헨리 미터(H. Henry Meeter) 박사의 칼빈주의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¹⁸⁾ 박윤선 박사의 칼빈주의는 우선 포괄적

17) 把守軍, 통권 5호(1950. 5), pp. 17—20, (1950. 6), pp. 89, (1951. 11), pp. 8—12.

18) 박윤선 박사의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은 결국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웠던

인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를 말했으며, 그의 전 주석에는 언제라도 칼빈의 입장 및 칼빈주의적 학자들의 사상이 채용되었던 것이다.¹⁹⁾

특히 주목할 것은 박운선 박사의 첫번 글에서 “칼빈주의의 기본원리와 칼 뵈트의 기본원리”란 제목 하에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점이다.²⁰⁾ 이는 칼 뵈트는 칼빈의 입장과도 다르다는 학술적인 논문이다. 특히 박운선 박사는 이 글에서 “계시 문제에 있어서 칼빈과 뵈트와의 차이점”, “설교에 있어서 칼빈과 뵈트의 차이점”, “기도에 있어서 칼빈과 뵈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박운선 박사는 “칼빈주의의 최대 표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위기신학”이란 글에서 칼빈주의적인 입장과 칼 뵈트의 신학의 입장을 비교 설명하면서 뵈트를 비판하고 있다.²¹⁾ 뿐만 아니라 박운선 박사는 “칼빈주의에서 본 敎會와 國家”²²⁾와 “칼빈주의와 政治”²³⁾ 등 다양하게 칼빈과 칼빈주의를 해설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1950년에 김재준 박사는 T.H.L. Parker의 Portrait of John Calvin을 “칼빈의 모습”(137p)이라고 번역해 냈다.²⁴⁾ 그리고 1953년부터는 전경연 박사가 칼빈에 관한 글을 여러편 발표한다. 예컨대 “칼빈의 생애와 그 신앙”²⁵⁾이란 주제 하에 8편의 글이 발표된다. 이 글들이 모아져서 1959년에 “칼빈의 생애와 그의 신학사

Vrije Universiteit에 가서 (1953년 10월에서 1954년 3월) 유학하게 된다. 그보다 앞서 박운선은 화란개혁파신학자인 카이퍼와 바빙크의 책을 탐독하고 있었다.

헨리 미터 박사는 미국 칼빈신학교와 대학에서 일생동안 칼빈과 칼빈주의의 강의를 맡고 연구한 분이다. 그의 소장서적을 중심으로 칼빈신학교는 몇년 전에 H.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가 설립되게 되었다.

- 19) 敬虔과 學問, 正岩 朴允善 牧師 聖役 五十年 記念論叢(靈音社, 1987), pp. 77ff.
- 20) 把守軍 13(1951. 1), pp. 14—18, 이 내용은 1951년 9월 27일 교역자 수양회 때의 강연이다.
- 21) 把守軍, 27(1953. 4), pp. 5—10.
- 22) 把守軍, 23(1952. 11), pp. 5—7.
- 23) 把守軍, 33(1953. 10), pp. 10—13.
- 24) 이 책은 1950년에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했다. 그리고 1973년에 재판이 나왔다.
- 25) 十字軍, 12, 15, 20, 21, 22, 23, 24, 26(1953. 4—1956. 9).

장”이란 책으로 햇볕을 보게 된다.²⁶⁾ 이 책은 때마침 칼빈의 기독교요결정판을 낸지 400년 되는 해에 의미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에 대한 그의 접근방법은 현대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같은해인 1959년에 박운선박사는 헨리 미터박사가 쓴 “칼빈주의”(The Basic Ideas of Calvinism)를 출판했다. 이는 1950년 말에 있어서 칼빈연구와 칼빈주의 사상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몇년 앞서 1956년에 Dakin이 쓴 Calvinism이 이병섭씨에 의해서 우리 말로 번역되었다.²⁷⁾ 그 외에도 50년대에는 채위씨의 “칼빈의 神 認識論”²⁸⁾ 한태동의 “칼빈主義와 現代思潮”²⁹⁾ 정웅섭의 “칼빈의 청소년교육과 그이념”³⁰⁾ 등이 있다. 또한 장희근씨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초역해서 6회에 걸쳐 발표한 적이 있다.³¹⁾ 그러므로 1950년대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칼빈연구에 새로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1960년대에서 현대까지

196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 한국교회에 있어서의 칼빈연구의 실태를 살펴보자. 1960년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기가 된다.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점차 아물어가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찬반여부로 교

- 26) 이 책은 전경연 박사가 김재준 박사의 지도 아래서 십자군지에 연재한 내용이다. 이것을 당시의 沈一鑿 군복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나 전경연 박사의 글은 독일의 Karl Holl과 Herman Banke의 저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칼빈을 만난 것이며, 현대주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서언 p. 4.
- 27) A. Dankin, 이병섭 역 칼빈주의(대한기독교서회, 1956). 이 책은 미국의 브리스틀 대학의 학장인 Dakin의 박사의 작품이다. 1편은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요약한 것이고, 제2편은 칼빈주의 역사를 간략히 다루고 제3편에서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그렇게 학문적인 것은 아니나 일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칼빈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
- 28) 神學論壇, 3(1957. 3), pp. 68—84.
- 29) 基督敎界, 1(1957. 8), pp. 17—23.
- 30) 韓神大學報 3집(1957)
- 31) 把守軍, 64—69(1957, 7—12), 「기독교강요」의 1권 중에서 몇부분을 번역한 것이지만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번역하기 시도한 첫번째 사람이 된 것이다.

회가 분열의 아픔을 가졌으나 몇년 후에는 자기 자기교회의 부흥운동에 주력하고 신학의 판도도 개편됐다. 그리고 새로운 학자들이 귀국해서 본격적 신학연구의 터전을 마련한다. 1970 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책들이 대량으로 번역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신학적인 발전과 칼빈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 외적 요인으로는 대중전도 운동과 개교회 부흥운동 그리고 경제개발로 말미암은 도시산업화 현상으로 인구의 대이동 등도 한국교회 부흥의 외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교회의 삼분오열로 헤아릴 수 없는 무자격 군소신학교가 생겨나고 인가받은 학교의 교육도 부실한 것이 너무나 많다. 신학생이 많아지고, 신학교과서에 대한 독자층이 확대되자 기독교출판업계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런데 이런 경향에 편승하여 칼빈 또는 칼빈주의에 대한 서적들이 많이 번역되었다. 이는 바로 한국교회의 보수성의 취향에 알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의 경향을 살펴본다면, 대개가 칼빈 또는 칼빈에 대한 2차자료를 번역하는데 주력할뿐 이렇다할만한 저술들은 많지 못한 실정이다. 또 많은 학술잡지에 칼빈에 대한 연구논문이 질리기는 하나 대개는 서양의 논문들을 편역한 것이 그 대종을 이루었다.

1960 년대에 칼빈에 대한 연구자들은 꽤 다양하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 각 분야에서 조금씩 칼빈을 다루기는 하면서도 정작 칼빈만을 연구하거나 칼빈주의만을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없는 실정이다. 다만 1960 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칼빈 또는 칼빈주의에 대한 가장 많은 논문들을 발표한 사람은 박윤선, 박형룡, 신복윤, 이종성, 이근삼, 정성구, 전경연, 한철하 박사 등의 여덟명 정도를 들 수 있다.³³⁾ 이들 중 정성구, 박윤선 박사를 제외한 분들은 모두가 교의학을 교수하는 분들로서 자연스럽게 칼빈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연구한 내용들이 대

32) 이렇게 여덟명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학잡지에 글을 쓴 빈도수에 의한 것이다. 그외에도 이장식, 홍치모, 정정숙, 김남식, 김복룡, 이형기, 나용화씨 등도 3편정도 이상을 발표하였다.

부분이다.

이 기간동안에 특이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년에는 이종성 박사가 Hugh Thomson Kerr 의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을 우리말로 옮겼다.³³⁾ 이것은 아직도 한국에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번역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요점적인 것을 축소하여 편집한 것이므로 신학도들과 교역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이다. 특히 1962년에는 「神學指南」이 칼빈특집을 다루고 있다. 사실 「神學指南」은 그보다 30여년전인 1934년에도 최초로 칼빈특집을 낸바 있으나 해방 이후의 신학잡지로는 처음으로 칼빈연구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³⁴⁾ 특히 이 특집호의 권두언에서 박형룡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절대다수의 신도들은 칼빈주의 신학의 감화 아래서 신앙생활로 살아온 것이다. 이들이 이 신앙의 분위기(雰圍氣) 속에 영적 호흡과 운동을 계속하는 동안 이 백성의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금일 세계적인 사상적 혼란(思想的混亂)의 선풍은 이 땅에도 불어온지 오래되어 진정한 칼빈주의에 배치하는 세력도 교계를 휩쓸고 있으며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 아리하여 금일 우리 앞에도 칼빈사상의 연구와 전파에 새로운 노력을 요구하는 정상(情狀)이 나타났다. 또 칼빈주의에 관한 역서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우리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본지의 이번 호를 칼빈특집으로 하는데는 상술(上術)과 같은 칼

33) 基督教綱要選, (대한기독교서회, 1960), p. 276.

34) 神學指南, 29권 1호, (1962), 칼빈특집호, 칼빈특집호에 실린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집실 “칼빈의 기도”, 박형룡, “칼빈의 現代的 意義(권두언)”, 안용준, “칼빈의 生涯와 事業”, 박형룡, “칼빈神學의 基本原理”, 오병세, “칼빈의 神國觀”, 명신홍, “칼빈의 倫理思想”, 편집실, “계네바교회의 組織과 禮拜에 관한 提議書”, 김희보, “教會者로서의 칼빈”, 명신홍역, “칼빈의 설교—성경을 정당하게 使用할 것”, 조동진, “教會統一과 分離에 對한 칼빈의 해석”, 한철하, “칼빈의 政治論”, 신복윤, “칼빈주의 <神學用語解說>” 등이 있고 서평으로는 한철하, “윌리엄 벤넬 칼빈主義文化概念”, 한철하,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의 강” 등이다.

빈의 현대적 의의라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된 칼빈주의의 광범위한 논의에 보다는 우선 칼빈 자신의 생활, 사상 사업의 고찰에 노력을 집중한다. 저 위대한 개혁자, 신학자의 끼쳐준 모범, 교훈, 감화는 우리들의 심령생활(心靈生活), 교회, 사회에 다시 힘차게 활동하기를 축원하는 바다.

칼빈 탄생 4백 25주년 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립 50주년인 1934년에 본지가 칼빈특집을 발행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회상한다. 그러나 근년 칼빈탄생 4백 50주년 겸 우리교회 창립 75주년인 1959년은 교회정치파동(教會政治波動)으로 인한 교회와 신학교의 분열 때문에 혼란분주하여 숙절없이 지냈던 것이다. 금년에 들어 이 칼빈특집을 내는 것은 3년 전에 못한 일을 소급해 서함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금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50주년이라는 사실은 이 특집에 좋은 의의를 부여한다고 본다.”

고 하였다.³⁵⁾ 이 칼빈특집호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이것은 칼빈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계의 사상적 혼란이 바로 칼빈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동기가 된 셈이다.

특히 1964년에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 1권이 신복윤, 한철하 박사에게 의해서 번역된다.³⁶⁾ 이 책은 칼빈의 작품이 비로서 한국에 소개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 작업은 1권을 출판하는데 그쳤으나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처음으로 낸 것으로 중요하다. 이 번역은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영역과 일본역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책을 펴내면서 역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韓國 땅에 基督教 福音이 들어온지 70 餘年 칼빈이 그의 「基督教 綱要」의 決定版을 낸지 四百餘年을 당하여 이제 이 不朽의 著作

35) 神學指南 제29권 제1호(1962), p. 9.

36) J. Calvin, 한철하, 신복윤역, 基督教綱要, 卷 1, (생명의 말씀사, 1964). 그리고 이 번역은 1988년에 전체 번역판을 낼때 거의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 韓國말로 옮겨져 出版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偉大한 基督教의 古典이 우리들의 손으로 처음 번역되는 것을 크게 榮光되게 生覺하는 바이다. 그러나 라틴語에 能熟치 못함으로 因하여 또는 時間的 制限으로 因하여 直接 原文으로부터 번역치 못함을 遺憾되게 여기는 바이다. 주로 존 알렌(John Allen)의 英譯(1813)과 헨리 비바릿지(Henry Beveridge)의 英譯(1845)에서 톨록(Tholuck)판 라틴原文과 中山昌樹의 日本譯을 參考하면서 이번역을 만들어왔다.”

고 하였다.³⁷⁾

그리고 1965년에는 한국 칼빈신학 연구회가 “칼빈 서거 400주년 記念論文集”을 발간한다.³⁸⁾ 이는 한국에서 칼빈연구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9년 칼빈의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여 구미자국에 있는 장로교도들은 여러가지 중요한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회는 이른바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지여부로 교회가 분리되는 아픔을 당하게 된다. 특히 1964년은 칼빈의 서거 400년이 되는 해였다. 이해를 기념하여 불란서의 스트라스 베퍼에서 구미에 있는 저명한 칼빈학도들이 모여서 귀중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칼빈연구사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 칼빈신학연구회가 주최가 되어 대강연을 가졌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4일간 매일 600여명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다. 칼빈 기념논문집은 그러한 강연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여기에는 토랜스(T.F. Torrance) 교수와 니젤(W. Niesel) 교수의 글도 실렸다.³⁸⁾

이러한 논문의 출판은 비록 작은 것이기는 하나 칼빈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안목을 열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68년에는 이 중성 박사의 “칼빈—생애와 사상”이란 책이 출판된다. 이 책은 주로 칼빈연구의 입문서 역할을 한 셈이다. 그리고 1969년에는 김성환 목사

37) *Ibid.*, p. 6.

38) 칼빈서거 400주년 記念論集(韓國칼빈神學研究會, 1965), p. 35. 이때 한국 기교자들은 다음과 같다. 한경직, “목회자로서의 칼빈”, 이종성, “칼빈의 生涯와 그의 位置”, 김정준, “성서학자로서의 칼빈”, 한철하,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경전” 등이다.

가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란 책을 썼다.³⁹⁾ 이 책은 기독교신보에 몇 해동안 연재되었던 글을 모은 것으로 칼빈주의를 해설한 처음이 된다. 그러나 이 책은 칼빈을 설명한 것도 칼빈주의를 설명한 것도 아니지만,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교의신학을 평이하게 해설한 역작이어서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의 칼빈연구 상황은 상당히 활력을 얻어서, 석사학위논문으로 칼빈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나온다. 특히 1970년대의 주목할만 번역들이 나온다. 첫째는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의 칼빈주의가 박영남씨에 의해서 번역되고(1971), 또한 헨리 반틸 박사의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가 “칼빈의 文化觀”이라 하여 이근삼 박사가 번역해냈다. 셋째는 이종성 박사가 Wilhelm Niesele의 *Die Theologie Calvins*를 “칼빈의 신학”이라는 책으로 번역했다(1973). 넷째는 정성구의 “칼빈주의 思想과 삶”이란 저술이다. 이는 기독교신보에 1976—1977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것이다. 이는 칼빈주의를 예장론이나 선택론 등의 교리적인 관심보다는 칼빈주의가 포괄적 사상체계로서 삶의 전영역에 관련된 성격적 세계관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각도로 쓰여진 책으로는 한국에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神學指南에 단 1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섯째로 세종문화사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완역되었다(1977). 김문재 목사가 영어와 일어를 대조하여 번역한 것으로 많은 각주가 있는 기념비적 출판이다 이 시기에 칼빈에 관한 글을 쓴분들은 다양하나 신복윤, 이근삼 등이 여러 편의 논문을 쓰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나 칼빈 또는 칼빈주의의 주제로 논문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⁴⁰⁾ 그리고 일반 신학잡지에 기고하는 분들도 1970년대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시기에도 칼빈연구에 관한 두드러진 번역 또는 저술은 첫째로 정성구

39) 김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영음사, 1969), pp. 274.

40) 1970년에는 17편의 석사학위 논문이 나오고 80년대는 현재까지 30여편의 논문이 쓰여졌다. 물론 이 논문들은 정식으로 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말한다. 물론 군소교단의 신학교의 논문들을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겠으나 논문의 질을 평가할 때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을 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편지의 “칼빈의 생애와 사상”(614면)이 있다. 이 책은 파커(T.H.L. Parker)의 최신판 칼빈전을 우리 말로 옮기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둘째로 이형기 박사의 “종교개혁사상—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527면)”란 책이 장신대출판부에서 나왔다(1984). 이는 저자가 여러 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은 것으로서 매우 깊은 학문적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등의 이름으로 공역되어진 요한칼빈의 「基督敎綱要」가 1988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것이다. 번역에 있어서 문체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는 책의 장정들은 가히 한국교회에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각주들은 일 본판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다.⁴¹⁾ 어쨌든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재 간행은 한국에 있어서 칼빈연구에 더 큰 자극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982년 聖書敎材刊行社가 펴낸 요한 칼빈의 新舊約聖經註釋을 출판한다. 이 또한 한국의 칼빈연구에 활력을 열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 작업이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역에 대한 시비도 없지 않다.⁴²⁾ 그리고 또하나 이 시기에 칼빈연구의 촉매제가 된 것은 1986년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이 편역하고 기독교문화협회가 펴낸 칼빈총서 10권이 출판된 것이다. 이는 칼빈 및 칼빈 해석가들의 저작물을 시리즈로 펴낸 것으로 칼빈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⁴³⁾ 그리고 최근에는 칼빈의 자료와 칼빈의 2차

41) 이 책은 上, 中, 下 3권으로 기독교 강요의 역사, 저작 목적 사상과 배경 등을 첨가하고 있다.

42) 이 책들은 신구약을 전 30권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영문판으로 된 칼빈의 주석들과 기독교강요들이 복사판으로 여러번 배포되기도 하였다.

43) 여기에 수록된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François Wendel, *Calvin*. Joseph Haroutunian, *Calvin Commentaries*. Arthur C. Custance, *The Sovereignty of Grace*. K.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W.P. Armstrong, *Calvin and the Reformation*. H. Bavinck, *Calvin and Common Grace*. John C. Olin, *John Calvin & Jacob Sadoletto a Reformation Debate*. B.B. Warfield, *Calvin, Luther, Augustine*. J.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Donald K. McKim, *Reading in Calvin's Theology*. Cornelius Van Til, *The case for Calvinism*. John H. Bratt, *The*

자료들이 다투어 번역되고 있어서 가히 칼빈연구의 전성시대가 열린 듯한 느낌이다. 한국의 칼빈연구는 아직도 번역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칼빈연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된 느낌이다. 이는 한국교회의 신학의 보수성이 칼빈 및 칼빈주의 연구에 활력을 가증시켰다고 본다.

Ⅲ. 한국에 있어서 칼빈 연구기관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에 있어서 칼빈연구는 번역단계에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 칼빈의 작품을 출판하는 것이 매우 활발하다. 한국교회 100년사에 있어서 칼빈을 처음 취급하기는 1924년이었고 해방 전까지 연구는 고작 20편의 글에 불과했다. 나머지 250여편은 모두가 2, 30년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칼빈연구는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 칼빈에 대한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A) 韓國칼빈神學硏究會(The Society of Calvin Studies in Korea)

이 연구회는 칼빈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과 목회자들로 구성된 것인데, 1963년 12월 10일에 발족되었다. 당시 창립총회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칼빈의 신학이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근거를 칼빈의 신학에 둔다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내의 대다수 목사들은 칼빈주의와 칼빈신학을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몇몇 목사가 1963년 11월 7일 하오 6시부터 9시까지 연세대학교 총장공관에 모여 토의한 결과 그 모임을 발기인회로 하고 창립총회소집 준비위원 3명을 선출하니 다음과 같다. 유호준, 김정준, 이종성 등 이었다.”⁴⁴⁾

Rise and Development of Calvinism 등을 실고 있다.

44) 칼빈 서거 400주년 記念論文集 *op.cit.*, p.133.

이런 결론을 따라서 창립총회가 기독교서회 사무실에 모였다. 이 총회에는 51명이 참석하여 임원선거를 하니 회장에 한경직 박사가 당선되고 총무겸 서기에 이종성 박사가 피선되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처음부터 이종성 박사의 주도하에 움직였으므로 기념논문집 1권과 몇 차례의 강연회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만한 성과가 없이 20여년이 흘렀다. 그리고 칼빈신학과 칼빈주의의 혼돈을 나무라고 있으나 무엇이 뚜렷한 차이점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칼빈연구학자 모두가 칼빈주의자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가령 불란서가 낳은 칼빈연구의 대가인 두메르그(Doumergue)는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한국 칼빈신학 연구회가 조직된 목적은 회칙 2조에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 있다. “본회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연구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에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⁴⁵⁾ 당시로는 칼빈의 저작하나 제대로 출판되지 않았던 황무지였으므로 이와같은 열정은 한국교회의 칼빈연구에 큰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장로교 통합측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다.⁴⁶⁾ 이 칼빈신학연구회는 일년에 두번씩 “칼빈신학”이라는 기관지를 출판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말았다. 이 조직은 최근까지 명목만 있어 오다가 한철하 박사를 중심으로 재조직 되었으며⁴⁷⁾ 일년에 몇 차례씩 연구발표회를 갖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다.

45) *Ibid.*

46) 당시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 장 : 한경직

총무 겸 서기 : 이종성

회 계 : 정세빈

부회계 : 정석복

연구부 : 한철하(장), 김정준, 정경연, 한태동, 도양술, 이영원, 지동석

출판부 : 안광국(장), 김판식, 성갑식, 정하은, 정석복, 정세빈

서무부 : 윤인구(장), 마삼락, 강신명, 유호준, 이영찬, 이종성 등이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본인의 승락도 없이 기재된 분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47) 최근의 이 조직의 중요한 간부로는 한철하, 이종성, 신복윤, 정성구, 유광웅 박사 등이 관련되어 있다.

B) 韓國칼빈主義研究院(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약칭 ICSK)

이 기관은 1985년 7월 10일에 설립된 칼빈 및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현재의 정성구 원장이 그가 30여년 가까이 수집한 칼빈 및 칼빈주의 연구자료 4,000여점을 내어놓고 관심있는 분들에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이 기관은 세계의 몇 안되는 칼빈연구기관 중의 하나로서 동양에서는 유일한 칼빈 및 칼빈주의 연구소이다.⁴⁸⁾ 이 연구원의 자료 중에는 16세기의 칼빈의 회귀본 자료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천종 이상의 서책과 3,000여종의 논문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초상화, 그림, 글씨 등이 수백점이 있으며, 전세계 칼빈주의 학자들의 육성 강의 녹음도 1,500여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연구원은 세계적인 기구들과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행사로는 1987년 10월 19일~31일에 종교개혁 47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칼빈(16세기)자료 전시회」를 한국 기독교 선교회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칼빈연구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한셈이며, 원본자료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 이 전시회는 3,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함으로써 한국 교회와 사회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⁴⁹⁾

그리고 1988년 10월 17일—28일에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칼빈의 최대해석가이자 가장 큰 칼빈주의 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박사 자료전시회」를 열었다. 이로 말미암아 신학계 뿐만 아니라 정치계와 문화계에 있어서도 칼빈주의 사상을 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이 전시회로 말미암아 전세계 개혁주의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도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범교단적 호응도가 부족하고 한국적인 학문풍토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기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 성경연구

48) 이 연구원의 핵심은 박윤선, 한병기, 정성구 등이 있다.

49) 이 자료 중에는 Calvini Opera Omina 전 9권을 비롯해서 16세기의 칼빈의 설교 등 그리고 폴트 총회회의록(1620), Theodore Beza Text(1611) 등 16세기의 자료만도 30여종이 소장되어 있다.

를 가지며 대해 칼빈탄생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다.

위의 두 기관 외에 「개혁주의 실행협회」는 꼭 칼빈의 신학이나 사상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닐지라도 출판물 통해서 개혁주의 사상을 간접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단 한국에 있는 장로교계의 신학교에는 대개가 칼빈의 신학에 대한 과목이 있으나 「기독교강요」를 영문으로 읽어가는 정도이거나 칼빈 신학에 대한 해설서를 읽어가는 정도이다. 그리고 칼빈주의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고신대학교와 총신대학 그리고 대한신학교 정도이고 그 나머지 학교는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結論과 展望

우리는 위에서 한국교회에 있어서 칼빈 또는 칼빈주의 연구는 어떠한가를 역사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신앙과 장로교신학의 요점인 칼빈의 신학사상을 근거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가 가장 강한 장로교회를 갖고 있으나, 칼빈연구나 칼빈주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왔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은 식민지 아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6·25 동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서 신학연구에 대한 안정성이 없었다. 그러나 196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칼빈신학의 부흥에 대한 관심이 부족 늘어난 것은 감상한 일이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칼빈주의 신학의 뿌리와 맥을 제대로 알지못하면서도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칼빈주의 신학을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로 내어버리는 어리석음도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진 교회의 유산을 잘 지키면서, 칼빈주의적 신학을 연구, 개발, 발전시키는 책임도 져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신앙없는 신학도 원치 않지만, 신학 없는 신앙도 문제라고 본다. 한국교회의 칼빈연구는 지금까지는 비록 걸음마 단계였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더 큰 힘을 얻어 앞으로 달려갈 것이며 세계교회를 위해서 공헌하게 될것을 의심치 않는다. (*)